

# 다중이용업소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광주시 1·2단계 특별점검 완료  
불법 증축·용도변경·화재안전  
대상 168곳 중 76곳서 132건  
11월말까지 3단계 점검 계속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광주시·사자구·소방·경찰의 합동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 28일까지 불법 건축물 1~2단계 특별점검을 벌여 전체 대상 168곳 가운데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 증축 37건 ▲불

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주차장 물건 적치 등 기타 22건 등이다.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상무지구 사고 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이나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안전보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하는 소방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위생 분야에서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확정,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광주시는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리고 11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상생카드’ 판매액 200억원 돌파

출시 5개월만에 5만4천장 발급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판매액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 출시 4개월 만인 지난 7월 28일 100억 원을 돌파한 뒤 한달여 만에 판매액 200억 원과 카드발급 5만4000장을 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판매실적은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발행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실시 중인 추석맞이 특별발행 확대에 따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활성화에 대해 10% 특별할인과 소상공인 및 지역업체의 카드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0% 특별할인은 기존 선불카드만 실

시한 특별할인을 체크카드까지 확대해 1인당 월 구매할인 한도가 선불카드 50만원에서 선불·체크카드 각각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원 구매한도의 10%인 1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까지 확대했다.  
박남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용자와 소상공인,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광주상생카드’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왕이면 ‘광주상생카드’를 골목상권에서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아파트 경비실 소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광주시는 9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비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비(60만원) 중 일부(43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파트 1개 동별로 5개 이상 설치 시 3만원, 1개 단지별로 10개 이상 설치 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태양

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을 보유해야 한다.  
시공은 시가 선정된 기업 중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2019년 공동주택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 세대 모집 변경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패널 고정장치,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됐으며 한 달에 30kWh 가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월 6000원~1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북구 기관·단체 9곳에 ‘행복나눔 냉장고’

보문복지재단과 운영업무협약  
광주시 북구가 공유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돌보는 마을공동체 사회안전을 구축한다.  
북구는 “이웃 간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오는 5일 보문복지재단과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는 지역 주민이 나누고 싶은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위기가정 대상자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보문복지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기부 받아 이달부터 종합복지관 4곳,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곳 등 총 9개 기관·단체에서

행복나눔 냉장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냉장고는 주민 누구나 식품·식재료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정된 독거노인·장애인·1인 가구·부자(父子)가정 등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안부 확인 차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북구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부식품 관리 원차·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도 제작했다.  
특히 올해까지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해 향후 운영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생활적폐 일소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30일까지 생활 적폐 일소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누리집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광주’(https://barosotong.gwangju.go.kr)와 우편(시 민주인권과 인권정책팀) 접수한다.  
생활 적폐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건물 불법 증·개축, 보조금 불법사용 등 시민의 공지와 자부심을 저해하는 불의·불법·부도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불안 등을 초래하는 제도나 관행을 말한다.  
광주시는 접수한 생활 적폐 일소 아이디어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시상금을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 적폐추진단을 구성해 매일 추진상황 점검과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패 공익신고, 세상을 바꾼다”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3일 오전 공무원교육원 중강당에서 공공기관, 시민사회, 경제, 학계, 언론, 직능단체 등 총 22개 참여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강화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다짐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 “승강기 책임보험 27일까지 가입 하세요”

안전관리법 개정 가입 의무화  
유예기간 끝나 28일부터 과태료

광주시는 승강기 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강기 소유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책임보험을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한 뒤 가입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이상이다. 부상등급별로는 1~14급 기준금액 20만원~1500만원, 장애등급별로는 1~14급 기준금액 500만원~8000만원 이상이다.  
그동안 승강기 책임보험 신규 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전격적으로 3개월간 유예됐었다. 하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중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8일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차 과태료는 100만원이지만,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까지 부과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광주지역 승강기는 올해 6월말 현재 2만1232대이다.  
정민관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